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벨라기아 수녀순교자

루가 제3주일

성 세르기오스, 성 박코스 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토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고린토 후 11,31-12,9 / 봉독서 114
- 복음경 : 루가 7,11-16 / 123. B 6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벨라기아 수녀순교자

단순한 호기심으로 교회에 찾아왔다가 설교 말씀만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의 예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벨라기아(3세기)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창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말을 타고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미모와 치장한 장신구 등에 도취된 채 성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벨라기아 성녀는 다음날 호기심

에 일리우폴리의 대주교이신 성 노노스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성당을 찾아 갔고, 하느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께서는 설교 말씀에서 성 벨라기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의 최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스스로 하느님을 찾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하는 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한다. 이러한 채권과 채무에 관한 관계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사막에서 생활하기 시작할 즈음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출애굽기 22,24)

신약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등장하는 매정한 종의 비유가 있다. 임금이 일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빌린 종에게 빛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갚을 돈이 없어 애걸하는 종을 임금은 가엾이 여겨 그의 빛 전부를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이란 적은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못하자 그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몹시 화가 나서 빚을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 야단치며 고문 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마태오 18,23-35)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엄청난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빈 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오늘처럼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은 빚을 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매정한 종임을 알려주는 비유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을 보면 잘못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잘못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데 그 중에는 ‘빚’의 의미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를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행위는 마치 이웃이 빚진 돈을 내가 탕감해 주는 행위와 같다. 만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채권자의 위치에 서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그를 학대하고 감옥에 집어 넣고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무정한 종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채권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을 괴롭히지 말고 함께 화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몸쓸 짓을 한 죄인을 용서해주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동료의 일백 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고 주님으로부터 일만 달란트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은 간결하다.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너도 네 동료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어라.” 다시 말해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사명에 따라 우리는 금전이나 잘못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채권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이웃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백 배 천 배로 갚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 뱀과 반딧불이

어느 날 한 마리 뱀이 반딧불이를 쫓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계속 쫓겨다니고 나자 반딧불이는 더 이상 힘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멈춰서고는 뱀에게 말하였다.

-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 나는 보통 내 먹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데, 이제 곧 너를 잡아먹을 것인니까 뭐 하고픈 말이 있으면 하고 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
- 내가 너의 먹이사슬 안에 포함되니?
- 아니.
-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니? 내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니?
- 없어.
- 그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러자 뱀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 왜냐하면 나는 네 몸에서 빛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 시기심과 질투의 감정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샘한 악마를 닮게 된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의 복을 누리며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기에, 악마는 첫 인간들이 자기처럼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날 때는 언제든지 그것과 싸워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애로우신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 아타나시아





## 소식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21일 금요일에 신 나탈리아 교우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올바른 정교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 ■ 가을 바자회

오는 10월 2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 도움에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9일(토)과 30일(일)에 서울 성당 큰 나무 밑에 바닥 데크 시공과 성막심 성당 내부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한국, 러시아, 루마니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교우들이 함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당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미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http://www.orthodoxkorea.org)